

## 韓國의 白衣象徵에 관한 研究

기전여자전문대 의상과  
전임강사 柳 恩 熙

| 目 次                             |                     |
|---------------------------------|---------------------|
| I. 머리말                          | Ⅳ. 朝鮮時代의 白衣禁令과 五行思想 |
| II. 白衣民族의 기원과 그 象徵              | V. 白衣와 自然主義 思想      |
| III. 古代에서 高麗時代까지의<br>白衣着用과 그 象徵 | VI. 맺음말             |

## I. 머리말

우리 민족을 일러 白衣民族이라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說이 있어서 箕子가 東傳한 殷 風俗이라든가, 원래 우리 민족이 흰빛을 숭상하였다고 하는 清潔, 素朴, 崇高 등으로 표현되는 민족적인 해석이 있는가 하면, 정치·사회 또는 경제적인 요인 즉 喪服의 遺習이나 사회계급적인 차별 또는 서민층에서의 染料의 결핍 등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本 研究에서는 白衣에 관해서 歷史적으로 고찰해 보면서, 고대인에게 있어서의 白衣象徵의 기원 및 白色의 의미를 종교적, 민족적인 측면에서 알아보았으며, 특히 사회제도적으로 五行思想에 의한 白衣禁令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고수하였던 白衣에 관해서 自然主義思想을 중심으로 白衣의 美를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色彩嗜好란 원래 각 개인의 經驗에서 생성된다. 그리고 특히 主觀적인 趣味判斷이다. 그러나 한편 民族으로서, 集團으로서의 客觀적인 色嗜好의 경향이 엮보인다.”<sup>1)</sup> 즉 色彩感情은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개인의 과거 체험에 따라서 다르나

그 단기가 되는 心意狀態는 오랜 經驗이나 慣習이 시대의 변천에 구애받지 않고 固有化 되어서 색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民族的 色彩嗜好(Racial Color Preference)로서 구현된다. 많은 연구에 의해 색채기호의 요인으로 社會的 生理的인 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Guilford T.P는 環境의 要因을 더하고 또 民族的 要因을 더해 색채에 대한 感情에 공통적으로 기초가 되는 요소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민족의 嗜好色이란 원래 오랜 역사를 두고 자란 결과로 “미국의 現代 色相에는 민족적인 반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미국에는 各國 民族이 모여들어 생활하였기 때문에 미국 특유의(proper) 색이 나오지 않게 되고 그들이 좋아하는 색은 流行色 뿐으로 고정민족의 색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민족에 따른 色嗜好 및 色偏見의 차이를 살펴보면 Europe인들은 대개 靑色을 애호하는데, 이는 靑色을 보수적이고 신뢰감을 표시하는 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자극과 흥분을 주는 赤色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 赤色을 축복이나 생명의 환희로서 좋아하며, Russia인은 赤과 美를 동일한 것으로

1. Faber Birren, *New Horizon in Color*, Reinhold Publishing Co., 1955. p.145.

로 생각하고 赤旗는 사회질서의 상징이라고 옛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다.<sup>2)</sup>

한 시대의 衣服文化는 그 시대의 生活樣式의 직접적인 표현이고, 또한 服飾에 있어서도 그 精神性을 나타내고 있는 色彩는 현대에 와서 服裝色의 변화나 嗜好色의 선택에 있어 流行色이라는 사회적 범주를 논의해야만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流行色에 따라서 의복을 입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白衣보다는 색이 있는 의복을 많이 입게 되었다. 한국방송공사 부설 色彩研究所에서 설문조사를 해 본 한동수 소장은 “아직 觀念的으로는 흰색을 좋아하는 경향이 강하나 의류 등 제품 선택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화사한 색상의 선호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하고 있다.<sup>3)</sup>

또 현대에 와서는 그 社會나 民族의 心理 및 都市環境 등을 연구하는 방법이 色彩心理學에서 중시되고 있다.<sup>4)</sup> 디자이너 지앙 프랑코 프레스는 앞으로 주요 패션도시들이 그 도시의 정서와 분위기에 알맞은 색을 패션에 대거 反映하는데, 예를 들어 파리는 화려한 검은색, 밀라노는 베이지색, 뉴욕은 짙은 회색 등이 될 것으로 豫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연 어떤 색상이 어울릴지는 모르지만 白色은 어느 색과도 조화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직도 우리 민족이 관념적으로는 흰색을 좋아하며 현대와 같은 물질만능의 시대에 白衣를 입었던 선조들의 精神性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 주제로 택해 보았다. 특히 한국사회는 傳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한 나라의 傳統을 이해하는 데는 먼저 그 나라의 역사에서 처음 국가 단계로 들어서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될 것이다.<sup>5)</sup> 그런 점에서 白衣民族의 기원과 유래도 한번 더 음미해 볼 가치가 있으리라 판단되었다.

먼저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를 일별해 보기로 한다. 崔鉉培는 「朝鮮民族 更生의 道」에서 白衣風習

의 外的 要因의 하나로 染料의 부족과 喪服의 遺習을 들고 있으며, 그러한 外的 條件보다 더 힘있고 깊은 것으로 민족이 清白을 좋아함, 민족적 自尊心과 保守性 등의 內的 原因을 들고 있다.<sup>6)</sup>

일본인 烏山喜一은 「鮮民白衣考」에서 “白衣는 東北古代民族間에 公同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衣料가 植物性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李朝의 서민들이 白衣에 執着한 것은 경제적 궁핍 때문이며 染料關係나 계속된 國恤에 기인한다는 것도 미흡하다. 그러다가 수백년 동안 踏襲되어온 이 慣習은 차차 嗜好와 매력을 주어 民族의 趣味로 되었다.”<sup>7)</sup>라고 논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행 연구로 李明姬의 「韓國白衣考」, 「韓民族의 白衣風俗에 영향을 준 動因에 관한 연구」와 조규화의 「白衣를 통해서 본 韓國人의 美意識」, 全完吉의 「韓民族의 白衣好尚 由來研究」 그리고 함춘희의 「우리나라의 白衣와 그 소재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白衣着用의 실체를 歷史的으로 고찰해 보면서, 특히 五行思想에 의한 白衣禁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존수했던 白衣를, 東洋의 自然主義思想과 관련시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시대별로 나타난 白衣象徵에서 보여지는 우리 고유의 思想觀도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고찰 대상 시기로는 韓服을 많이 입었던 古代에서부터 朝鮮時代까지로 한정하기로 한다.

## II. 白衣民族의 기원과 그 象徵

白衣에 관해서 그 始原의인 고찰을 해보자면, 옛 사람들은 白衣風俗은 원래 殷나라 風習인데 箕子가 東傳하였다고 생각했다. 즉 “箕子가 素車와 白馬(殷나라 사람들은 흰색을 숭상했다)로 周나라에 조방하는 길에 은의 옛 도읍터를 지나다가 궁실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벼와 기장이 난 것을

2. 孫貞淑, 「服裝의 嗜好色 發達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64, 36쪽.

3. 東亞日報, 1992.3.24.

4. 張文戶, 「服飾美學」, 서울대출판부, 1975, 114쪽.

5. 전조홍, 「古代韓國의 國家成立에 관한 연구-漢四郡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의국여대 대학원, 1985, 4쪽.

6. 崔鉉培, 「朝鮮民族更生의 道」, 정음사, 1930, 78, 79쪽.

7. 烏山喜一, 「滿鮮文化史觀」, 京城 力江書院, 1935, 276, 280쪽.

일종의 '샤만이즘'이라 하겠다. '샤만이즘'은 보통 善惡 二元論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善神은 흰 빛으로, 惡神은 검은 빛으로 상징되기도 한다.<sup>18)</sup>

태양으로 대표되는 善神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되었으나, 반면에 암흑에 사는 鬼類와 같은 惡神은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惡神을 물리치고 善神을 맞아다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능력을 가진 呪術士를 필요로 하였다. 이들을 동북아시아 일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샤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sup>19)</sup>

白은 黑의 反對를 표시한다. 黑이 惡과 黜, 汚, 下賤, 凶事를 표시한 데 반하여, 白은 善과 主張, 潔, 高貴, 慶事를 표시한다. 한국의 '샤만이즘'은 이 黑·白 '샤만'의 두 계통 중에 白 '샤만'계가 더 우세하여 白山崇拜, 白衣民族, 太陽崇拜 등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sup>20)</sup>

### Ⅲ. 古代에서 高麗時代까지의 白衣着用과 그 象徵

우리 민족은 고대인의 특성 중 하나인 태양숭배와 敬天思想<sup>21)</sup>에 따라 고유한 '밝' 사상을 형성하였다. 부여나 예맥 등 고대의 부족국가는 자신의 민족을 '밝'족이라 자처하였다. '부여(扶餘)'라는 말은 '밝음'을 뜻하며, 예맥족도 스스로를 동쪽과 밝음의 부족으로 자칭하였다. 이러한 '밝'은 곧 '白'을 뜻하며, 그리하여 흰색을 神聖한 색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러면 문헌상에 나타난 백의에 관한 기록을 조

사해 보기로 한다. 우선 後漢書에서 보면 挹婁人들은 '여름에는 옷을 벗고 지내는데 한자쯤 되는 삼베로 앞, 뒤를 가린다.'라고 되어 있다.<sup>22)</sup> 또한 扶餘人들은 殷正月이 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의복은 白衣를 숭상하는데 흰 베로 만든 소매가 큰 포와 바지를 입으며, 신은 가죽신을 신었다<sup>23)</sup>고 하며, 부여인들의 喪時 의복으로 "居喪하는 데는 남녀가 모두 흰옷을 입되 부인은 布面衣를 쓰고 패물을 제거한다"고 하였다.<sup>24)</sup> 즉 하늘에 드리는 祭祀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여름옷으로 베를 많이 입으며, 喪服으로도 白衣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東漢에서도 "의복제도는 남녀가 모두 曲領을 입었고, 특히 남자는 허리에 銀花를 달았는데 넓이가 여러 치(寸)이다. 이것은 장식 삼아 단 것이다"<sup>25)</sup>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장식구도 白色인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같이 白衣好尙의 기풍은 부여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들 사이에 공통된 것이었지만, 아름튼 우리 민족이 白衣를 좋아하여 온 것만은 사실이며 또 白衣民族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러한 유구한 전통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26)</sup>

삼국시대를 살펴보면 魏書에 고구려인의 衣冠이 나와있다. 즉 "백성들은 모두 이곳에 토착하여 산골짜기를 따라 집을 짓고 살면서 布帛과 皮로 옷을 지어 입는다. 머리에는 절풍을 쓰는데 그모양은 弁과 같다. 그 옆에다 새의 깃(鳥羽)을 꽂는데, 귀천에 따라 차이가 있다"<sup>27)</sup>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帛과 皮로 의복을 지어 입었으니 이것은

17. 박현숙, 『檀君神話攷』, 경북대 대학원, 1985, 14쪽.

18. 趙芝薰, 『韓國文化史序說』, 서울 탐구당, 1964, 80쪽.

19. 李基白, 『韓國史新論』 개정판, 일조각, 1988, 18쪽.

20. 李明姬, 『韓國白衣考』, 서울대 대학원, 1974, 53쪽.

21. 魏志 東夷傳에 기록된 扶餘의 迎鼓, 濊의 舞天, 馬韓의 天君 등은 모두 고대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천에 대한 祭儀를 말하는 것이다.

22. 後漢書 挹婁 卷 115, 夏則 裸袒以尺布 蔽其前後

23. 後漢書 卷 13 : 烏丸鮮卑 東夷傳 第30 扶餘, 在國衣尙白 白布大快袍袴 履革踏.

24. 三國志 卷 13. 烏丸善卑 東夷傳 第30, 弱公之註. 其居喪 男女皆純白 婦人着布面衣去環佩.

25. 三國志, 卷 13, 烏丸鮮卑 東夷傳 第30

26.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이대출판부, 1977, 43쪽.

27. 魏書 卷100, 高句麗傳, 民皆土著 隨山谷而居, 衣布帛及皮……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插鳥羽 貴賤有差.

일종의 '샤만이즘'이라 하겠다. '샤만이즘'은 보통 善惡二元論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善神은 흰 빛으로, 惡神은 검은 빛으로 상징되기도 한다.<sup>18)</sup>

태양으로 대표되는 善神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되었으나, 반면에 암흑에 사는 鬼類와 같은 惡神은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惡神을 물리치고 善神을 맞아다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능력을 가진 呪術士를 필요로 하였다. 이들을 동북아시아 일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샤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sup>19)</sup>

白은 黑의 反對를 표시한다. 黑이 惡과 黠, 汚, 下賤, 凶事를 표시한 데 반하여, 白은 善과 主張, 潔, 高貴, 慶事를 표시한다. 한국의 '샤만이즘'은 이 黑·白 '샤만'의 두 계통 중에 白 '샤만'계가 더 우세하여 白山崇拜, 白衣民族, 太陽崇拜 등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sup>20)</sup>

### Ⅲ. 古代에서 高麗時代까지의 白衣着用과 그 象徵

우리 민족은 고대인의 특성 중 하나인 태양숭배와 敬天思想<sup>21)</sup>에 따라 고유한 '밝' 사상을 형성하였다. 부여나 예맥 등 고대의 부족국가도 자신의 민족을 '밝'족이라 자처하였다. '부여(扶餘)'라는 말은 '밝음'을 뜻하며, 예맥족도 스스로를 동쪽과 밝음의 부족으로 자칭하였다. 이러한 '밝'은 곧 '白'을 뜻하며, 그리하여 흰색을 神聖한 색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러면 문헌상에 나타난 백의에 관한 기록을 조

사해 보기로 한다. 우선 後漢書에서 보면 挹婁人들은 '여름에는 옷을 벗고 지내는데 한자쯤 되는 삼베로 앞, 뒤를 가린다.'라고 되어 있다.<sup>22)</sup> 또한 扶餘人들은 殷正月(殷正月)이 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의복은 白衣를 숭상하는데 흰 베로 만든 소매가 큰 포와 바지를 입으며, 신은 가죽신을 신었다<sup>23)</sup>고 하며, 부여인들의 喪時 의복으로 "居喪하는대는 남녀가 모두 흰옷을 입되 부인은 布面衣를 쓰고 패물을 제거한다"고 하였다.<sup>24)</sup> 즉 하늘에 드리는 祭祀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여름옷으로 베를 많이 입으며, 喪服으로도 白衣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東漢에서도 "의복제도는 남녀가 모두 曲領을 입었고, 특히 남자는 허리에 銀花를 달았는데 넓이가 여러 치(寸)이다. 이것은 장식 삼아 단 것이다"<sup>25)</sup>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장신구도 白色인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같이 白衣好尙의 기풍은 부여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들 사이에 공통된 것이라 하지만, 아릅튼 우리 민족이 白衣를 좋아하여 온 것만은 사실이며 또 白衣民族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러한 유구한 전통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26)</sup>

삼국시대를 살펴보면 魏書에 고구려인의 衣冠이 나와있다. 즉 "백성들은 모두 이곳에 토착하여 산골짜기를 따라 집을 짓고 살면서 布帛과 皮로 옷을 지어 입는다. 머리에는 절풍을 쓰는데 그모양은 弁과 같다. 그 옆에다 새의 깃(鳥羽)을 꽂는데, 귀천에 따라 차이가 있다"<sup>27)</sup>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帛과 皮로 의복을 지어 입었으니 이것은

17. 박현숙, 『檀君神話攷』, 경북대 대학원, 1985, 14쪽.

18. 趙芝薰, 『韓國文化史序說』, 서울 탐구당, 1964, 80쪽.

19. 李基白, 『韓國史新論』 개정판, 일조각, 1988, 18쪽.

20. 李明姬, 『韓國白衣考』, 서울대 대학원, 1974, 53쪽.

21. 魏志 東夷傳에 기록된 扶餘의 迎鼓, 濊의 舞天, 馬韓의 天君 등은 모두 고대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천에 대한 祭儀를 말하는 것이다.

22. 後漢書 挹婁 卷 115. 夏則 裸袒以尺布 蔽其前後

23. 後漢書 卷 13 : 烏丸鮮卑 東夷傳 第30 扶餘, 在國衣尙白 白布大快袍袴 履革屨.

24. 三國志 卷 13. 烏丸鮮卑 東夷傳 第30, 菟公之註. 其居喪 男女皆純白 婦人着布面衣去環佩.

25. 三國志, 卷 13, 烏丸鮮卑 東夷傳 第30

26.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이대출판부, 1977, 43쪽.

27. 魏書 卷100, 高句麗傳, 民皆土著 隨山谷而居, 衣布帛及皮……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插鳥羽 貴賤有差.

바로 自然主義와 통하는 것이며, 또한 관모에 새의 깃을 꽂는다는 것은 일종의 샤만의 표시이다. 즉, 고구려 시대에 샤만이즘이 토착종교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백제인의 衣冠과 帶에서 흰색을 살펴보면, “六品 이상은 冠에 銀華로 장식한다. …… 克虞는 16품인데 이들은 모두 白帶를 한다…… 부인들의 옷은 포와 비슷한데 소매가 크나”고 하였다.<sup>28)</sup> 끝으로 신라인의 복식에서 살펴보자면, “의복은 白色을 숭상하고 부인들은 머리를 땡아 뒤로 감는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비단과 구슬로 장식한다”<sup>29)</sup>고 하였다. 즉, 백제에서는 衣冠이나 帶와 같은 장신구에서도 銀華나 白帶 등 白色을 애호하는 경향을 엿볼 수가 있었고, 신라에서도 의복을 白色으로 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면, “잡사(蠶絲)가 적어서 한 필의 비단값이 銀 10냥이기 때문에 삼베옷이나 모시옷을 많이 입는다”<sup>30)</sup>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볼 때 儉素服으로도 백의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서 고려시대에 文克謙은 수놓지 않은 비단을 입음으로서 이와같은 검소함을 실천했는데, 그는 성품이 孝友慈仁하고 정직하여 의복으로 수놓은 비단은 입지 않았다고 하였다.<sup>31)</sup> 고려왕은 “평상시 될 때는 검은 건에 흰 모시 도포를 입으므로 거의 백성과 나뉘바 없었다고 한다.”<sup>32)</sup> 즉, 왕도 될 때에는 庶民과 똑같은 우리민족 고유복식인 白衣를 착용하였다. 고려 여인들은 “흰 모시로 포를 만들어 입었는데 거의 남자의 포와 같으며, 부녀가 있는 비단으로 너른 바지를 만들어 입는데, 안을 생 명주로 만치니 이는 넉넉하게 하여 옷이 몸에 붙지 않게 함이다”<sup>33)</sup>라고 하여 흰 모시와 삼베

옷을 많이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 삼베나 모시의 색은 말할 것도 없이 백색(素色)인 것이다.

#### IV. 朝鮮時代의 白衣禁令과 五行思想

##### 1. 五行思想의 起源과 內容

‘五行思想’은 ‘陰陽’思想과 더불어 전통사상의 기본 구조 속에 나타나는 핵심개념 중의 하나이며 그 두가지는 흔히 ‘陰陽五行說’로 불려왔다. 그러나 ‘陰陽說’과 ‘五行說’은 원래 별개의 이론이며, 이 두가지 이론이 하나로써 체계화 된 것은 戰國時代부터이다.

중국고대에 우주의 기원과 그 구조를 설명하려는 두가지 思想이 있었다. 하나는 陰陽家의 저술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易傳 특히 繫辭傳에서 찾을 수 있다. 『書經』의 〈洪範〉편이나 『禮記』의 〈月令〉 편에서는 五行을 강조했으나 陰陽에 대한 언급이 없고, 周易의 繫辭傳에는 오히려 음양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으나 오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sup>34)</sup> 漢代에 이르면 陰陽家 사상이 儒家에 흡수되었으며 중국인들의 고전적 세계관인 陰陽五行思想이 확립되었다.

문헌적으로 최초로 五行에 대해 쓰여진 것은 『書經』의 〈洪範〉편이다. 거기에는 ‘九疇’가 설명되는데 그 가운데 첫번째로 五行이 나타난다.<sup>35)</sup> 아마도 오행은 上古代에 있어서는 생활의 주변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일기하면서 생겼을 것이며, 그것이 우주적 원리로 발전한 것은 후대이며 특히 騶衍 등 음양가들을 경과하면서 부터이다.<sup>36)</sup> 특히 음양오행 사상은 漢代에 성행되었으며 天道와 人

28. 周書 卷49, 列傳 第41, 異域上, 百濟, 六品以上 上冠飾銀華, ……克虞 十六品皆白帶……婦人衣以袍而袖微大.

29. 隋書, 卷81, 列傳, 第83, 新羅條, 制46 東夷新羅, 服色尚素 婦人綰髮饒頭 以雜綵金珠爲飾

30. 宋史 卷 486, 列傳246 外國, 少蠶絲 匹織直銀十兩 多衣麻苧.

31. 高麗史 권 99, 列傳12, 文克謙條

32. 宣和奉使高麗圖經, 卷7, 上服, 或聞平居燕息之時 則芻巾白紵袍 與民庶無別也.

33. 宣和奉使高麗圖經, 卷20, 貴婦, 白紵爲袍 略如男子製 丈綾寬袴 裏以生 欲其褻裕不使著體.

34. 馮友蘭 지, 정인재 역, 『中國哲學史』, 형설출판사, 18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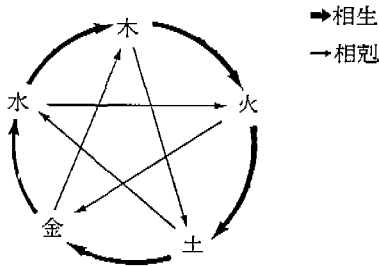
35. 書經, 周書, 洪範條 “一, 五行: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36. 赤塚忠 의, 『중국사상개론』, 이론과 실천, 1987, 101쪽 참조.

道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천룡사상(天人合一)이 강조되었다.

五行說은 정신적, 물리적인 우주의 모든 존재가 다섯가지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五行은 흔히 영어로 five elements로 번역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인 물질이나 요소라기 보다는 오히려 다섯가지의 기본적인 과정이며 관계이다.<sup>37)</sup> 후대에 정립된 바에 따르면 오행은 다음과 같이 수많은 경우들에 적용되었다.

|      |   |    |   |   |
|------|---|----|---|---|
| 木    | 火 | 土  | 金 | 水 |
| 五時：春 | 夏 | 長夏 | 秋 | 冬 |
| 五方：東 | 南 | 中  | 西 | 北 |
| 五色：青 | 赤 | 黃  | 白 | 黑 |
| 五味：酸 | 苦 | 甘  | 辛 | 鹹 |
| 五臟：肝 | 心 | 脾  | 肺 | 腎 |
| 五牧：羊 | 禽 | 牛  | 犬 | 豚 |
| 五常：仁 | 禮 | 信  | 義 | 知 |
| 五情：喜 | 樂 | 慾  | 怒 | 哀 |
| 五音：角 | 徵 | 宮  | 商 | 羽 |
| 五官：目 | 舌 | 口  | 鼻 | 耳 |
| 五神：魂 | 神 | 意  | 魄 | 志 |



또한 오행은 木火土金水의 순으로 상생하며, 木金火水土의 순으로 상극한다.<sup>38)</sup>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위와 같다.

이처럼 五行의 相生, 相剋 상호관계에 따르면,

왜 오행설로 인해서 白衣着用을 금하게 되었는지 가 나타난다.

## 2. 五行思想과 白衣禁令

그러면 五行思想이 한국의 白衣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徐居正의 筆苑雜記 卷二에 嘗觀汎蟲錄曰 高麗人好白衣, 道誥曰 東方屬木宜尚青 而白是金 木不可也. 居正曰 陽中有陰 陰中有陽 東方屬青 尚白是陽中之陰也라 하여 고려인이 백의를 좋아했다 했는데, 東은 靑이며 白은 金에 相剋한다. 이것은 바로 陽中之陰이라 하여 五行思想 관계로 白衣習俗을 정당화 하였다. 그러나 대개는 반대로 五行思想 때문에 白衣를 禁하였으니, 高麗末의 白衣禁의 시작도 이 때문이었다. 즉 玉龍記에 이르기를<sup>39)</sup> 우리나라가 白頭에서 시작하여 地異에서 그치니 그 勢는 水根木幹之地라 黑으로서 父母를 삼고 靑으로서 身을 삼고 있다. 만약 風俗이 土에 順하면 昌하고 土에 逆하면 災殃을 받는다. 풍속이라 함은 君臣百姓衣服冠蓋를 말함이다. 今後 文武百官은 黑衣靑笠으로 하고 僧服은 黑巾大冠으로 하고 女服은 黑羅로 하여 土風에 順應하도록 말하여 王이 이에 따랐다 하였다. 水根木幹은 北과 東이니, 北은 水요 黑이고, 東은 木이요 靑이니<sup>40)</sup> 그렇게 고치자고 한 것이다. 辛禍八年 七月에도 我國木性 不宜服黃白赤色衣라 하여 우리나라는 木性이니 黃白赤 같은 색의 착용은 맞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忠烈王元年 六月에도 같은 이유로 白色衣를 禁한 바 있었으니, 高麗時代 五行思想은 오히려 白衣禁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朝鮮에서도 五行思想을 명목으로 白衣를 계속 禁했으니 風水地理 등 다른 風俗에는 그렇게 五行思想이 많은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白衣風俗만은 바꾸지 못하였던 것 같다.

朝鮮時代に 와서도 白色의 禁令은 太宗元年 5월

37. Joseph Needham저, 이석호 외 역, 『중국의 과학과 문명』Ⅱ, 을유문화사, 343쪽.

38. 앞의 책, 360~361쪽 참조.

39. 高麗史志 卷72, 冠服通制. “恭愍王六年潤九月 司天少監于必興上言 玉龍記云 我國始于白豆 終于地異 其勢水根木幹之地 以黑爲父母 以靑爲臣 若風俗順土則昌 逆土則滅 風俗者 君臣百姓衣服冠蓋是也 今後 文武百官 黑衣靑笠 僧服黑巾大冠 女服黑羅 以順土風從之”

40. 『書經』 「周書」 洪範條

에 白色衣服을 禁하고 있으며,<sup>41)</sup> 태종 11년에는 백관의 복색이 흰빛에 가깝다하여 회색과 옥색도 금하였다.<sup>42)</sup> 世宗代에 들어와서는 世宗 7년 10월 司憲府에 教旨를 전하여 정부관청에서 일하는 者를 제외하고는 白衣를 禁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同王 11년 2월에는 다시 정부에서 일하는 자의 白色衣服을 禁하였다. 세종 19년 9월에는 백색은 본래吉한 의복이 아니라고 禁하고 있다.<sup>43)</sup> 燕山君 11년 3월에는 都城 女子들의 首飾과 白色 치마를 금하고 있다.<sup>44)</sup> 현종 12년 왕은 朝官·士人에게 黑衣를 착용하고 白衣를 禁할 것을 명하였다. 동방에서는 백색을 숭상하여 國典에 비록 백색금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습속이 되어 번하지 않는다. 현종도 생각하시고 바꾸시기로 하시고는 마침내 이 금령을 정하였다.<sup>45)</sup>

그러나 계속되는 白衣禁令은 형식화되고 만 느낌을 주게 되었다. 英祖代에 와서 일반민에게까지 백의금령이 내려졌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英祖2년에 下教하여 '自古로 여러나라는 각각 崇尚해야 할 服色이 있는 법인데 우리나라는 東方에 있으므로 마땅히 靑色을 崇尚해야 하는 고로 公卿에서 士庶에 이르기까지 다 靑衣를 입게하라'는 영을 내렸는데, 이는 高麗 忠烈王의 白衣禁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英祖 14년 8월 右參贊 李德壽는 다음과 같이 반대론을 進言했다. 즉 萬物은 東에서 시작되어 西에서 이룩되는 것이므로 東方 사람들이 西方의 색을 숭상하는 것은 有始有終을 위함이다. 그런데 東方이라 하여 靑色을 숭상하는 것은 실로 시작은 있으나 마무리가 없는 것인 즉 그러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에서 白을 숭상한다는 것은 隋書 宋史에 기록되어 있고 董越의 朝鮮賦에도 있는데, 이미 습관화

된지 수십년이나 된 것을 지금에 와서 變改시킨다는 것은 不可하다고 하였다.<sup>46)</sup> 이에 대해서 王은 우리나라는 靑丘에 속해 있고 仁으로서 立國하였으니 마땅히 崇靑하는 것이 仁을 따르는 바라 하여 白衣를 禁함이 옳다고 하였다. 즉, 관습에 의해서 禁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음양오행설에 의해 禁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服色에 대한 禁制는 朝鮮王朝實錄에만 68건이 보여지는데,<sup>47)</sup> 이중 白色에 대한 禁制가 13건이며, 백색과 비슷한 灰色이나 玉色도 백색과 가까우므로 역시 木德을 쇠하게 한다는 이유로 禁하도록 하였다.<sup>48)</sup> 이와같이 조선시대에 수없이 되풀이된 백의금령은 그만큼 조선인들이 백의를 좀체로 벗지 못하고 있음을 反證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선 선비들은 清廉, 潔白, 清貧 등과 같은 儒敎의 정신적인 德目을 중시여겨서, 조선 후기로 올수록 바지, 저고리는 물론 道袍나 鶴氈衣 등 白衣를 즐겨 입었다. 즉 그들의 정신적인 이미지도 白色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白衣를 끈질기게 계속 입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민족성이라든가 또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사적으로 계속 연구해서 여러가지 원인이 있음을 명백히 밝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本考에서는 주제를 한정시켜서 오행설에 의한 백의금지령과 이에 얽하지 않고 계속 입어온 白衣와 관련된 自然主義 思想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기로 한다. 특히 本考에서는 白衣의 재료가 麻나 紵, 綿이나 絹 등과 같은 천연섬유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조선시대까지도 인공염료가 등장하기 이전이었으며, 또한 염료의 가격도 비싸서 색이 있는 의복이 대중화 될 수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白衣의 美를 우리나라 미술의 특성인 自然主義

41. 太宗實錄, 元年 5月條, 白色衣服禁

42. 太宗實錄, 11년 4月條.

43. 世宗實錄, 19年 9月條. 白色本非吉服

44. 朝鮮王朝實錄, 권 57, 燕山君 11年 3月條. 王命 都城女 首飾及白色裳禁.

45. 顯宗改修實錄, 권 8, 12年 正月條, 今朝官·士人 着黑衣禁白衣 東方尙白 國典雖有 白色之禁 而仍因成習 莫之變, 上思以易之遂定是制.

46. 英祖實錄 卷47, 14年 8月條. 萬物始於東而成於西 東方之人尙白之色 其取以有始有終……同俗之尙白 前史多記之若隋宋史及皇明 董越取錄 其大明有徵者也 夫俗之成也 數千年令而改之 未見其可.

47. 白性體, 「服飾·奢侈 禁制考察」, 이대대학원, 1979, 23쪽.

48. 朴保英, 「韓國服飾文化史에 나타난 禁制 考察」, 강희대대학원, 1992, 35쪽.

와 관련시켜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그 시대 미술의 특성이나 양식은 곧 시대양식에 가장 민감한 의복 양식에도 반영되어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 V. 白衣와 自然主義 思想

### 1. 白衣와 自然主義

白衣의 美를 自然主義에서 찾고자 한다면, 먼저 자연미론을 일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美的인 것은 일반적으로 '自然美(the aesthetic in nature)'와 '藝術美(the aesthetic in art)'로 대별된다.<sup>49)</sup>

한편 고대 殷나라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道家思想에서는 인위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無爲自然을 말하였고, 그들의 理想은 道에 합치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서양의 자연 개념과는 다른 東洋的 自然崇尙의 사상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먼저 自然에 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자연적인 조건에 대해 알아 본다면,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온대지역이다. 四季가 뚜렷하면서 봄 가을이 길고, 여름 겨울에도 그 온도 차가 격심하지 않다. 즉 자연의 혜택을 받은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자연적인 조건은 대부분이 淸明하고 건조해서 日照量이 많다. 이처럼 드높은 하늘, 푸른 산, 맑은 공기, 눈부신 외광 등의 자연환경은 깨끗한 白衣와 잘 어울린다. 또 우리나라처럼 습기가 많은 나라에서는 은은한 중간색도 잘 어울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경우 원래 가지고 있던 白色에 대한 관념은 반도성 기후인 자연 환경과 잘 적응되어 세계사상 유례없는 白衣好尙國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연과의 調和는 미술 작품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金元龍 씨는 “한국 미술의 바닥을 흐르고 있는 것은 自然主義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것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미

술의 基調가 되고 있다”고 보았다.<sup>50)</sup> 그는 또 『韓國美의 探究』에서 “한국 미술품은 요란하지가 않다. 부드럽고 조용하고 때로 적막하다. 그것은 결국 작품 자체의 완전한 調和에도 있지만 주위 환경이나 자연과의 융합, 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色과 施文 면적을 줄이고, 원재료의 특성 그대로를 될 수 있는대로 살려서 자연과 부딪치지 않는 부드러운 조화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였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白色을 좋아했다. 그것은 白에 대한 동경이라기 보다 무장식에 대한 사랑이었다. 삼베고 무명이고 그저 원재료가 가지는 素色을 즐겼던 것이고 그 인공 장식의 없는 조용하고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좋아했는데, 이러한 경향성의 바탕에는 東洋的인 自然觀이 깔려 있다 하겠다. 말하자면 人間은 大地의 법칙에 따르고 大地는 天의 법칙에, 天은 道의 법칙에 그리고 道는 自然의 법칙에 따른다는 것이다.<sup>51)</sup> 즉 인간은 대지의 법칙을 본받아 生을 영위하고 안전을 얻으며, 대지는 天의 법칙에 따라 地上의 만물을 온전히 싣고 生育시키며, 天은 道의 법칙으로 그 運行과 활동을 그르치지 아니하며, 천하 만물의 胎元인 道는 作爲함이 없는 자연을 본받음으로 無爲自然을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적인 자연관에서 볼 때 道는 宇宙의 自然法理를 의미함과 동시에 人生의 當爲法則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東洋的 自然觀에서 道는 어디까지나 자연법칙이므로 이러한 無爲自然의 운행, 발전에 順應하고 이에 합치한다는 것이 곧 동양적인 자연관의 특성이다.<sup>52)</sup>

이렇게 보자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自然美란 天·地·人 三才를 통해서 道가 작용하는 성능으로서의 無爲自然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의미하게 되며, 여기에 自然의 調和에 의한 삼라만상의 아름다움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sup>53)</sup> 琴基淑은 한국인의 自然美를 주도하는 사상적인 배경으로

49. 白琪洙, 『美學序說』,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5, 114쪽.

50. 金元龍, 『韓國美術史』, 汎文社, 1973, 4면.

51. 金元龍, 『韓國美의 探究』, 悅話堂, 1978, 25면.

52. 老子, 『道德經』, 25장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53. 白琪洙, 『藝術學 概說』, 東民文化社, 1977, 51쪽.

54. 白琪洙, 앞의 책, 50쪽.



敬天思想과 自然崇拜思想 그리고 風流思想을 들고 있는데 이 세가지 사상에도 각각 天, 地, 人 三才가 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55)</sup>

창작된 藝術美가 自然美보다 더 정리되고 세련되며 더 효과적이거나, 인상적일 수 있다. 그러나 창작된 美도 결국은 自然의 美를 출발점이나 기준점으로 하고 있으며, 보다 본원적이고 포용적이고 잠재적이고 그리고 강화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역시 自然의 美이다. 自然美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美 자체 뿐이며, 그 뒤에 아무것도 숨어 있거나 소리를 내는 것이 없다. 문자 그대로 無人脫俗의 경지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미술품들은 아무리 위대한 작품일 지라도 무척 겸손, 소박, 순수하다고 본다. 本人은 白衣의 自然美의 특징도 謙遜, 素朴, 純粹, 溫順 등으로 보고 싶다.

金元龍은 “白色에의 愛着은 한국인들에게는 人工의 排除요, 自然에 대한 憧憬이라고 볼 수 있다. 확실히 麻이거나 絹이거나 織物을 짠 그대로 입었으니 그 色은 흰 수밖에 없다.”<sup>56)</sup>라고 하였으며, “자연에 대한 애착, 자연현상의 순수한 수용—이것이 한국민족의 특성이요 또 한국미술의 본질적인 것이다”<sup>57)</sup>라고 말하였다. 김원룡의 자연주의 이론은 한국의 미를 “자연의 美”로 보았던 柳宗悅의 설과는 대조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긍정적 측면으로 관조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리하여 그는 특히 삼국시대를 韓國的인 自然主義가 전개되어졌던 시기로 규명하고 있다.<sup>58)</sup>

高裕燮은 조선미술의 특색으로 無關心性과 自然에 순응함을 들고 있다. 즉 “民家에 보여지는 추녀의 顛仰轉起에 있어서도, 自然 그대로의 굴곡진 木材를 그대로 없어서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이러한 무관심성은 마침내 自然에 순응하는 心理로 변해진다.”라고 하였다. 즉 한국미술의 특징은 自然

主義이며, 마찬가지로 한국의 白衣도, 자연에의 順應, 調和 등과 같은 自然主義와 연결된다고 보여진다.<sup>59)</sup> 요즈음도 태어나는 아기의 배넛 저고리는 반드시 백색으로 한다던가, 喪主가 입는 삼베의 素色 등에서 우리 고유의 白衣民族의 風俗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역시 자연에서 태어났고 자연으로 되돌아 갈 때에 입는다고 하는 일종의 자연주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최순우는 “한국적이란 말은 한국 사람들의 性情과 생활 양식에서 우리나라 부리하지 않는 아름다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소박한 아름다움, 호젓한 아름다움, 그리움이 깃든 아름다움, 수다스럽지 않은 아름다움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움 속을 고요히 누비고 지나가는 익살의 아름다움 같은 것을 아울러서 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sup>60)</sup>라고 말한다. 필자는 白衣의 美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여기고 싶다. 즉 白色에의 愛着은 人工의 排除요, 自然에 대한 憧憬으로서, 人工이면서도 自然으로 돌아가며, 人爲이면서 人爲 以前의 世界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 2. 白衣와 白色의 美

한편 當代의 白色衣의 흰 정도를 보자면, 高麗圖經<sup>61)</sup>에 玉과 같이 희고 결백하다고 하였으니 그 흰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삼국시대 포류 중 麻布만은 다소 황색을 띄고 있으나 苧布는 원래가 백색인데다가 이들을 뺀면 빨수록 순백하여져서 이것으로 일상복을 만들었던 관계로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옷을 가지고 尙白이나 清潔하다느니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sup>62)</sup>

또 苧衣郎中單也 夷俗不用純領 自王至民庶 無男女悉服之<sup>63)</sup>라 한 것으로 보아 麻苧는 王에서 庶民에 이르기까지 입었고 身分區別은 다만 그 흰이 심세한가 아닌가의 차이 뿐이었으니, 상류층은 純

55. 琴基淑, 「朝鮮時代 服飾에 表現된 韓國人의 美意識 研究」,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88, 214쪽.

56. 金元龍, 『韓國美術史』, 汎文社, 1973, 4쪽.

57. 金元龍, 앞의 책, 5쪽.

58. 安輝溶, 『韓國繪畫의 傳統』, 문예출판사, 1990, 47쪽.

59. 高裕燮, 『韓國美의 散策』, 東西文庫, 1977, 64쪽.

60. 崔順雨, 『崔順雨全集』, 5, 學古齋, 1992, 18쪽.

61. 徐兢, 『高麗圖經遺』, “其國自等苧麻 人多衣布 絕品者謂之純潔白如玉 而室邊羅 王與貴臣皆衣之.”

62. 『三國志』卷三十 魏書, 扶餘條, 弁辰條, 高句麗條 및 梁書 諸長石濟條 참고.

63. 柳喜卿, 「古墳壁畫에서 본 高句麗福 小考」 『韓國服飾 1』, 1981, 29쪽.

白에 가까운 細苧衣를 입을 수 있었고 庶民이나 하류층은 葛布나 麻布 등의 自然色 그대로의 素白色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高裕燮은 한국의 白磁에서 볼 수 있는 白色은 “백색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여 짜지고 졸여 짜여져서 굳건한 것을 통하여 구수하게 우러난 變化性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마치 굳건한 麻苧, 창호지, 장판지에 다시 풀을 먹이고 다듬어질 하여 더욱 굳건한 마전을 하여 한개의 맹자한 趣態를 넘과도 같다”<sup>64)</sup>고 하였다. 실제로 한복의 모시나 삼베는 빨면 빨수록 더욱 색깔도 희어지고 질감도 개선된다.

그러나 일본인 도예가 八木一夫 씨는 朝鮮 白磁는 色彩라고 본다. “平服은 木綿의 白이요, 常服의 白은 潔白하지 않은 베(麻布)의 白이요, 그 중간에 있는 白이 李朝白磁의 ‘白’이라고 그는 풀이했다. 또한 이 李朝白磁의 ‘白’은 ‘太陽의 白’이 되고 赤과 黑이 色의 단위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 ‘白’은 우주를 표현하는 總體色이라는 것이 金永基의 견해이다.”<sup>65)</sup>

한편 한국의 白磁나 白衣에 관하여 말할 때, 白色은 우리 민족의 清潔, 純潔함을 의미한다고 주로 언급되었다. 또한 이조백자에서 같은 白色이라도 乳白色, 苧白色, 雪白色, 灰白色, 軟玉色 등 다양한 色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白衣도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느낌을 갖는 다양한 白色이 나타나게 된다. 즉 서민복의 거친 삼베에서 보여지는 황갈색이 강도는 素色에서부터 담황색에 이르기까지의 천자체의 色인 本然之色과 모시의 靑白色, 乳白色 등에서 느껴지는 맑고도 투명한 靑楚한 아름다움과, 명주의 광택이 주는 優雅하고 端雅한 느낌의 세련되고, 귀족적인 白色과 풀먹인 무명의 은은하고도 淡白한 色感 등 각각의 소재나 질감에 따라서 白色이 주는 느낌은 각각각색이다.

특히 자연에 순응되고 조화되어지는 의복을 입었기 때문에, 한국인은 의복의 색조가 은은하고도, 淡白하였다.

최순우는 “중국, 일본, 유럽의 미술품들을 무수하게 돌아보고 망금 돌아온 나의 눈에 비친 우리 미술품들이 맞이해 주는 담담한 色感의 諧和美는 바로 이것이 한국이다 하는 쾌재를 빈개같이 느끼게 했다”고 술회하였다. 즉 한국의 色感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보는 눈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淡調의 세계는 다른 민족이 좀처럼 따르기 어려운 깊이와 폭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또 항상 신변에서 白色을 즐기고 그러한 白色들을 마련하고 하는 사이에, 한국인들에겐 白色에 대한 매우 풍부한 전식은 물론 여러 종류의 白色을 식별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의 한복에서도 속옷은 전부 흰색으로 입으며, 동정의 순결한 백색이나 치마에 다는 하얀 장식고름 그리고 버선과 고무신의 은은하게 번지는 흰빛에서도 우리 고유의 白色의 美를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VI. 맺음말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古代부터 朝鮮時代까지 白衣 濫用의 실례를 문헌을 중심으로 찾아보면서, 백의를 착용했던 선조들의 宗教觀이나 思想觀 그리고 民族性과 精神性 등을 白衣象徴을 통해서 찾아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고대에 있어서 밝(桓) 사상은 ‘백색사상’ 그리고 ‘환(桓)사상’이나 ‘한’ 사상으로 대표되기도 한다. 즉 단군은 ‘밝음’을 나타내는 天神이며 太陽神으로서 ‘桓’이나 ‘朝鮮’은 다 光明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밝’은 ‘밝다’ ‘환하다’는 뜻으로, 태양의 빛, 日精을 의미하는 것이며, 桓因, 桓雄의 桓과 檀君의 檀( 밝 )과도 연관된 말이다. 이처럼 단군신화의 내용에는 동방사상의 공통적인 自然主義적인 性格이 나타나 있고, 그 자연주의적인 성격은 자연에 순응하는 농경적인 생활양식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sup>66)</sup> 특히 밝사상은 仙道와 함께 현실적인 인간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신라와

64. 高裕燮, 『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 通文官, 1963, 6쪽.

65. 金永基, 『朝鮮美術史』, 金龍圖書株式會社, 1948, 208쪽.

66. 金榮子, 『韓國의 服飾美』, 민음사, 1992, 27쪽.

같은 경우에는 風流道<sup>67)</sup>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민족의 敬天思想도 단순한 종교적 대상으로서의 天上의 天을 향한 敬拜위주의 신앙체계라기 보다는 인간계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現世思想의 바탕 위에서 성립되어졌다.

부여인들은 평상시에는 물론 祭禮와 喪禮時에도 백의를 着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삼국시대의 白衣着用的 실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自然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서 素色의, 皮, 麻, 苧, 布帛 등을 많이 착용하고 있어서, 강한 자연주의적인 성향을 볼 수 있었으며, 鳥羽冠 등에서는 샤머니즘 사상을 엿볼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왕도 평상시에는 白衣를 고수하였으며, 또한 白衣가 귀족들에게는 儉素服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내려진 白衣禁令은 사대부와 관리는 물론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도 적용되었는데 그것은 그만큼 白衣를 많이 입었다는 것을 反證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선비들이 더 白衣를 많이 입게 되었는데 여기서 정신적인 지조와 절개 등 선비정신을 엿볼 수 있겠다. 즉 백의의 종교적 상징으로는 光明, 明朗, 敬虔, 神聖, 嚴肅, 貞淑 등이, 민족적인 상징으로서는 純潔, 清潔, 淨潔, 純一 등이, 물질적인 寡欲主義나 정신적인 상징으로서는 儉素, 清廉, 潔白, 安貧, 清貧, 志操, 節概, 孤高 등이 나타났다.

전 시대에 걸쳐서 우리 민족이 白衣를 착용함으로써 우리 風土와 土俗에 조화되는 服飾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自然主義的인 思想으로부터 白衣의 美를 찾고자 하였다. 이 자연주의사상에서 보여진 白衣의 象徴으로는 謙遜, 素朴, 純粹, 溫順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白衣의 色상의 美에 관한 象徴으로는 太虛, 本然之色, 淡白, 淸楚, 淸純, 淸淨, 優雅, 端雅 등이 나타났다.

또한 시대에 따른 白衣象徴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高유의 思想을 요약해 본다면, 木(桓) 사상과 三神思想, 태양숭배사상과 敬天思想, 애니미즘과

샤머니즘, 道敎思想과 風流思想, 儒敎精神에 입각한 선비사상과 五行思想 그리고 自然主義思想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은 유행색에 따라 의복을 입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름 한 철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白衣를 많이 입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요즘은 진통을 되살리려는 경향에 따라서 韓服의 色도 천연 염료의 차분하고 은은한 색조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것 또한 환경을 보호하고 自然으로 되돌아 가자는 Ecology의 패션경향과도 일치한다고 보인다. 즉 고도로 기술적이고도 인공적인 것이 발달된 현대로 올수록 더욱더 東洋의 自然觀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參考文獻

- 經國大典  
高麗史, 卷 72, 85  
三國志, 卷 13, 30  
高麗圖經, 卷 7, 20  
書經  
隋書  
魏書, 卷 100  
周書, 卷 49  
…然, 『三國遺事』  
李暎, 星湖叢說  
太祖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英祖實錄  
高裕燮, 『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 通文官, 1963  
高裕燮, 『韓國美的 散策』, 동서문고, 1977  
權桂淳, 『李朝服色考』, 효성여대 연구논문집, 1968  
金東旭, 『李朝前記服飾研究』, 아세아문화사, 1973  
金永基, 『朝鮮美術史』, 金龍圖書株式會社, 1948  
金元龍, 『韓國美術史』, 汎文社, 1973  
金元龍, 『韓國美的 探究』, 열화당, 1978  
金廷鶴, 『韓國民族形成史』, 『韓國文化史大觀』, 고

67. 한국철학회편, 『韓國哲學史』(1:卷), 東明社, 1987, 10쪽, 풍류도는 <玄妙한 道>와 ‘木 중생과 접하여 그들을 생라나게 변화시킨’<接化群生>이라는 2가지 고유한 내용이 있고 동시에 기기에 儒, 佛, 道의 三敎가 接木되어 있다는 것이다. 『三國史記』新羅本紀 眞興王條,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敎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敎 接化群生”.

- 대민족문화연구원, 1964
- 金相一, 『한哲學』, 전당사, 1984
- 김현진, 『桓國正統史』, 송산출판사, 1986
- 박현숙, 『檀君神話攷』, 경북대 대학원, 1985
- 白琪洙, 『美學序說』, 서울대출판부, 1975
- 白琪洙, 『藝術學概說』, 동민문화사, 1977
- 石宙善, 『韓國服飾史』, 보진재, 1973
- 孫貞叔, 『服裝의 嗜好色 發達에 관한 研究』, 서울  
대대학원, 1964
- 孫晉泰, 『朝鮮民族史概論』, 을유문화사, 1948
-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이대출판부, 1976
- 柳喜卿, 「古墳壁畫에서 본 高句麗服 小考」 『韓國  
服飾 1』, 1981
- 李基白, 『民族과 歷史』, 一朝閣, 1971
- 李基白, 『韓國史新論』 일조각, 1988
- 李文垣, 「李朝時代의 衣料生産에 관한 高찰」 『아  
세아 여성연구』 제1호, 1962. 12
- 李明姬, 『韓國白衣考』, 서울대 대학원, 1974
- Joseph Needham 저, 이석호 외 역, 『중국의 과학  
과 문명』 II, 을유문화사
- 李如星, 『朝鮮服飾考』
- 徐居正, 『筆院雜記』, 卷 2
- 張文戶, 『服飾美學』, 서울대출판부, 1975
- 赤塚 忠 외 저, 조성을 역, 『중국사상개론』, 이론과  
실천, 1987
- 전조흥, 「고대 한국의 국가성립에 관한 연구-한  
사군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 대학원, 1985
- 馮友蘭 저, 정인재 역, 『中國哲學史』, 형설출판사
- 趙璣濬, 『韓國經濟史』, 日新社, 1962
- 趙芝薰, 『韓國文化史序說』, 探究堂, 1974
- 震檀學會, 『韓國史』, 乙酉文化社, 1959
- 崔南善, 「不咸文化論」, 『六堂 崔南善全集』 2, 玄岩  
社, 1974.
- 崔南善, 『故事通』, 京城, 三中堂, 1946
- 崔順雨, 『崔順雨全集』 5, 學古齋, 1992
- 崔鉉培, 『朝鮮民族更生の 道』, 正音社, 1930
- 崔虎鎮, 『近代韓國經濟史 研究』, 박영사, 1964
- 洪思重, 『韓國知性的 故郷』, 탐구당, 1972
- M.S.Ryan,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Faber Birren, New Horizon in Color, Reinhold  
Publishing Co., 1955

## ABSTRACT

### A Study on the symbol of the Korean Beak Eui

Eun-Hee R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adaptation of traditional beauty of dress in Baek Eui for the establishment of tradition of dress culture. Especially, the color of the traditional dress represent a symbol which is connected with the national character and the environment. But it is hard to examine closely because color preference are transformed with the times.

This study is framed within the limits of the next themes : the origin, history and meaning of the Baek Eui ; the philosophical theory of cosmic Five Elements and the Prohibition of Baek Eui ; the beauty of Baek Eui.

As the national character is indicative of the conservativeness and the purity, Koreans have kept up wearing Baek Eui in spite of the occasional prohibition. Since the color of the dress represented the signs of the social class and the power, over the eighty percent of the common people put on the Beak Eui ; ramie and flax fabrics that has it's own color in Chosun-Dynasty.

I think that the use of natural color harmony is prominent and the beauty of Baek Eui is the naturality and the non-artificiality.

The meaning of the symbol on the Korean Beak Eui is the divinity, the holiness, the purity, the cleanliness, the modesty, the frugality, the integrity, the constancy, the elegance, the simplicity.